

생식 강요 및 생식 강요가 가정 폭력 생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 폭력을 겪는 많은 이들은 폭력의 한 유형으로 생식 강요를 당하기도 한다. 생식 강요는 폭력적인 파트너가 상대가 자신의 몸과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상대의 생식 건강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나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생식 강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식 강요의 예:

- 파트너가 원하지 않을 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압박을 준다.
- 피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임약, 자궁내 장치(IUD), 피임 링과 패치 등의 피임법을 손상한다.
- 성관계 중 상대가 모르게 콘돔을 제거한다 (스텔싱).
- 상대를 의도적으로 HIV를 비롯한 성병에 노출시킨다.
- 임신을 강제한다.
- 파트너에게 낙태를 강제하거나 낙태와 관련된 결정 및 접근성을 통제한다.
- 생식 건강과 관련된 병원 방문을 제한한다.¹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성생활과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성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생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의사들은 생식 강요와 가정 폭력, 건강 문제를 연결 짓는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3배 더 높다.² 성병과 HIV에 감염된 청소년기 여성 3명 중 1명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과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나 모두 가정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생식 강요를 당할 위험도 있다. 그러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폭력의 영향:

- 가정 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훨씬 더 많다. 여성은 남성보다 친밀관계폭력을 당할 위험이 훨씬 크다.⁴
- HIV 감염 여성 중 55%가 가정 폭력을 경험한 반면, 감염되지 않은 여성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그 절반 정도이다.⁵
-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은 다른 인종보다 가정 폭력을 다른 인종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되었다.⁶
- 여성 6명 중 1명, 남성 33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피해자가 된다.⁷
- 친밀관계파트너 폭력은 이성관계와 비교할 때 동성관계에서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다. 동성애, 양성애자 남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2%가 과거 또는 현재 관계에서 어떠한 유형이든 폭력을 경험했고, 19%가 신체적 폭력을, 19%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⁸
-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은 폭력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는 여성에 비해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 3배 더 높다.²
- 여성 6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다.⁹
- 미국 여성 10명 중 1명은 친밀관계파트너로부터 강간(강제 삽입) 당했다.⁹
- 가정 폭력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48% 더 높다.⁵

생식 강요, 가정 폭력과 건강 문제는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분명히 생존자의 건강과 안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 폭력 분야에서는 생식 강요를 폭력적인 파트너가 이용하는 술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폭력 활동가들은 반드시 생식 강요를 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생존자와 섹스를 편하게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동가들은 인테이크,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때 이런 폭력의 유형을 기억해야만 생존자를 적절한 서비스에 소개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SOURCES:

1. Gee, Rebekah & Mitra, Nandita & Wan, Fei & Chavkin, Diana & Long, Judith. (2009). 동등성 보다 힘: 친밀관계폭력과 생식력 통제의 문제(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ssues of fertility control).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1. 148.e1-7.
2. Coker, A. L., Smith, P., Bethea, L., King, M., & McKeown, R. (2000). 신체적/심리적 친밀관계폭력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Archives of Family Medicine, 9, 451-457.
3. Decker and, MR, Silverman, JG Raj, A; 2005 Pediatrics: Vol. 116 No. 2 August 2005, pp. e272-e276
4. 전미 친밀관계파트너와 성폭력 조사(NISVS): 2010 요약보고서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nisvs_report2010-a.pdf
5. Machtiger, E.L., Wilson, T.C., Haberer, J.E. et al. HIV 감염 여성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메타 분석(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in HIV-Positive Women): A Meta-Analysis. AIDS Behavior 16, 2091–2100 (2012). <https://doi.org/10.1007/s10461-011-0127-4>
6. Rennison CM, Welchans S. 친밀관계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NCJ 178247).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0.
7. 국립법무원 및 질병예방통제센터, 여성 폭력의 만연함, 발생률 및 결과 조사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1998).
8. Houston, E., & McKirnan, D. J. (2007). 동성애자 남성, 양성애자 남성간 친밀관계폭력: 위험 상관관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Intimate partner abuse among gay and bisexual men: risk correlates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urban health :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84(5), 681–690. <https://doi.org/10.1007/s11524-007-9188-0>
9. Smith, S.G., Chen, J., Basile, K.C., Gilbert, L.K., Merrick, M.T., Patel, N., Walling, M., & Jain, A. (2017). 전미 친밀관계파트너와 성폭력 조사(NISVS): 2010-2012 State Report. Atlanta, GA: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상예방통제센터.